

기업경영과 환경보전방법



노순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원장

1.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오래전부터 환경과 경제 즉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은 서로 상계(trade off) 관계에 있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특히 개발을 경제 성장과 같이 보는 시각이 강하여 일반적으로 환경과 경제는 어느 일방이 개발되면 다른 한쪽은 피해를 보는 이율배반적, 양자택일적인 관계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중에는 경제성장이나 기업성장을 중요시한 나머지 어느 정도의 환경파괴는 불가피하여 환경을 약간 파괴하더라도 성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다.

미래분석 전문가들은 향후 10년은 지구의 연대가 될 것이며 환경보호의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다. 워싱턴 대학의 공공정책 전문가인 밀러(G. Miller)의 말에 따르면 90년대에는 환경보호가 사회개혁의 첨병이 될 것이며 또한 비즈니스 즉 기업경영에서도 절대적으로 중요

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미국 맨하탄에 있는 경영컨설팅회사측에서도 환경보호란 과거의 보수주의나 진보주의에 못지않게 거대한 정치적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말로 우량회사들은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있다. 듀폰은 지구의 공기오염을 이유로 연간 7억5천만달러의 매출액사업을 포기하였다.

맥도널드(MacDonald)는 연간 수백파운드의 엄청난 쓰레기와 플라스틱 폐품을 쏟아내고 있는데 재생하여 사용하는 혁신적인 방법을 실행에 옮겼으며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지도적인 교육자가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3M은 제조생산물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프록터 앤드 갬블(P&G)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제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퍼시픽 가스 앤드 일렉트릭사도 에너지 효율에 관한 프로젝트를 합작하고 추진함으로써 환경그룹에 뛰어 들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철학은 지구인 모두의 공통인식으로써 발전하였으며 부르트란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즉 개발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세대에게 필요함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현재 빈곤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우선과제이며 두번째는 개발은 환경용량의 한계를 넘지않고 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한계는 기술수준이나 사회제도의 개선에 의하여 증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하는 정치체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조화를 결여한 개

발로 인하여 발생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체제, 스스로의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는 행정체제의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2. 기업경영과 환경보전

엑슨사는 소비자들로부터 비즈니스로 돈버는데만 신경을 쓸 뿐 다른쪽 즉 환경을 보호하는데는 별로 관심을 안두는데 그로 인하여 어떤 환경문제를 야기시킨 사고에 대해 그 수습책으로 10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도 좋은 평판을 얻지는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잃어버린 명예는 쉽게 회복되지가 않는다.

뉴욕타임지는 장기적으로 대중을 상대로 환경보호의 요구와 기준이 높고 그리고 계속적인 환경개선이 비용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수행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가라는 여론조사를 실시 하였는데 81년 9월에는 45%가 동의하지 않았으나 최근의 조사에서는 79%가 동의하고 18%만이 동의하지 않았다.

실제로 갤럽의 한 조사결과 50대 이상의 49%가 환경보호에 강한 일치감을 보이고 있고 30-49세사이는 39%가 그리고 30대이하에서는 31%가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20년전의 환경보호에 대한 현상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새로운 개혁운동은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예전의 방법과는 다르다. 워싱턴대학

의 어느 교수는 60년대의 환경보호는 반전운동과 시민권리획득이라는 대물결속에서 사회활동의 꼬리부분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는 환경보호주의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보이며 거리에서의 투쟁방식도 더욱 격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3. 환경보전으로서의 사업

선구적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나 선진적인 기업들의 반응을 보면 환경대책도 하나의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총 9백억달러에 달하는 연금기금의 이사인 데이비스(Davis)는 단속과 여론의 관심제고로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며 그러한 원칙을 옹호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상품판매 점유율을 높여주며 이익도 올려줄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투자의 경제성이 그다지 평가되지 않은 채 공해대책이 강제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공해방지의 투자는 1965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74년, 75년이 최고도로 달하였다. 특히 73년, 74년은 전세계적인 오일쇼크로 인하여 구미선진국 모두가 에너지 가격과의 조정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공해규제를 완화하거나 미루고 있는 가운데서 유독 일본만이 엄격한 기준을 전혀 변함없이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본다면 국민총생산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1970년도에는 1.0%, 1975년에는 2.0%를 투자한 셈이다. 1975년의 2.0%중 민간기업의 공해방지투자가 GNP중 차지하는 비율은 1.0%인데 미국은 0.4%, 독일은 0.3%를 투자한 것과 비교해서 볼 때 일본의 민간기업이 환경부문에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GNP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인 74년도에 GNP의 2%를 환경문제에 투입하였던 것이 그 후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라고 보는 전문가가 많아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4. 환경파괴상품의 대체품 개발

엑슨사의 최고경영층들은 환경론자들을 대할 때 과격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즉 기업의 환경보호에 관심을 기울였다.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사고를 예방하고 피하는 것은 오늘날의 산업계가 안고 있는 긴급한 하나의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다.

듀폰의 어느 간부는 한달에 한 번은 환경론자들을 만나고 있으며 그들의 의견에 따라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는 상품제조를 중지하고 CFCs에 대처할 안전한 물질을 개발하는데 1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지만 장

래를 생각하여 결단을 내렸다.

환경문제에 대한 듀폰의 배려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듀폰은 법률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도 더 많이 환경부문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르며 가스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텍사스공장에 사용하는 돈도 1천5백만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듀폰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활동에서의 오염의 제로화이다. 듀폰은 동시에 환경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자체 노력으로 얻은 경험으로 유독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해 주기 위한 환경자원 안전부서를 설립했다. 기업경영전문가들은 서기 2000년까지는 이러한 분야에 약 10억달러 이상의 비즈니스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3M의 최고경영자도 오염통제 기구의 설치는 투자에 대한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이익으로도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환경통제가 원가절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 왔다. 그간 3M은 비디오테이프이나 압축테이프와 같은 코팅처리하는 제품을 제조해 왔는데 이들은 장기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3M은 오염방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75년이후로 10억달러가 넘는 비용을 절약해 왔는데 그 프로그램은 비용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줄인다는 면에서 큰 호응

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에 환경보전기금의 경제학자와 변호사들은 이 회사의 몇개의 석탄 및 핵발전 공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에 맞서 싸웠으며 더욱이 환경보호주의자들은 핵발전소보다도 풍차와 같은 설비를 제안하였다.

PG&E의 회장인 리처드 클라크는 몇가지 원칙들을 배웠는데 그것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환경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절대로 하는 일에 대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환경문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되고 환경론자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다. 환경문제에 있어서 그들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올바르기 때문에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맥도널드(MacDonald)는 주의 사항을 하나 더 첨가시켰는데 즉 맥도널드가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 특히 뜨거운 식품을 포장하는 폴리스틸렌에 대한 증가하는 저항에 직면하여 이 거대한 레스토랑 회사는 재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고 남은 것을 재생시키고 또한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데 몇 단계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맥도널드의 환경이슈에 대한 총괄상담원은 폴리스틸렌이 100% 재생만 된다면 종이보다 환경면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종이는 플라

스틱보다 훨씬 부피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맥도널드는 고객에 대한 홍보로 그러한 노력과 설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점포에는 광고와 안내지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의 교사들에게는 직접통신(Direct Mail)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다. 맥도널드는 이같은 방법으로 매일 1천8백만명의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다.

기업의 경험에서 배우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환경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지식이 변함에 따라 태도도 변하며, 따라서 그 해결책도 달라진다. 맥도널드가 1976년에 포장지를 종이에서 폴리스틸렌으로 바꾼 것은 사람들이 종이를 생산하는데서 오는 산림의 황폐화와 에너지의 문제 때문이었다.

그리고 70년대까지만 해도 CFCs는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서 인간에게는 전혀 해로움이 없는 근대화학의 승리라고 할 정도였다.

아무튼 최근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환경보호론자 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노력 그리고 기업의 공동노력없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문제는 보다 지구화되어 가는 경향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비즈니스가 자리잡고 있다.

5.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경영자세

일본의 경우 고도성장기로부터 현재까지 환경에 대한 기업경영 자세에 어떤 변천이 있었는지를 고찰해 보면 먼저 일본의 사회적 책임론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56년 경제동우회 제9회 대회에서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자각과 실천이 결의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 결의문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는 바로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의 자각과 실천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별기업의 이익이 그대로 사회의 이익이라고 믿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으며 지금은 경영자가 앞장서서 그 조화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국민경제의 번영은 물론이고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도 없게 되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현재 경영자는 윤리적인 면이나 실제적인 면에서 단순히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되며 경제, 사회와 조화를 해나가면서 생산의 제요소를 가장 유효적절하게 통합하며 값싸면서도 좋은 제품을 생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같은 기업경영만이 근대적 경영자세라 할 수 있으며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이란 바로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과거는 기업이란 사회의 신탁에 의해 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즉 경영자는 주주로부터 자금을 받아 그것을 운용하여 이익을 내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이윤제일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이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이 거듭되었으며 기업의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지만 그것은 이윤을 올린다는 기업본래의 목적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윤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물론 동시에 이윤 획득 방법과 그 배분에 관해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본격적인 비즈니스 시대를 구가하는 국가나 기업으로서서는 이윤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한 환경문제라는 사회적 책임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6. 환경문제에 대한 영향

기업계의 그같은 경영자세의 변화는 기업과 사회의 화합을 야기했다. 그것은 지구차원의 자연고갈문제와 환경오염문제가 논의되어 기업을 포함한 사회전반에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위기의식이 싹트고 그 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경영자는 출자자로부터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는 것으로 자본에 입각하여 경영자의 경영권이 성립되며 그 경영권이 수행되

는 과정에서 각부문의 권한이 부여되는 구조를 가진 것이 기업이다. 따라서 그 책임은 어디까지나 자본에 대한 책임이며 이는 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 시스템이고 이 경제 시스템속에서 사회적 책임도 존재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자동차와 같이 에너지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상품을 제조하고 있는 산업의 영향도 크다. 더구나 앞으로의 자동차는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를 받을 전망이고 지구의 온실화가 진행되는 경우는 세계의 농업에 영향을 미쳐 농산물 수입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와 식품업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산성비의 원인물질로서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을 들 수 있다. 전력, 철강, 화학 등의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다소비형의 제품인 자동차가 그 주원인이며 이에 대한 배출가스규제와 방지대책도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예상되는 규제 방법은 현재의 배출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20%정도를 더 줄이려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자동차에 있어서 환경문제 해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다른 나라에 그 자동차 상품을 판매함은 물론이고 그 기술까지도 로열티(Royalty)를 받으면서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또 프론트를 생산하고 있는 화

학메이커 및 프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제조메이커, 필름메이커, 정밀기계메이커, 자동차메이커, 가전메이커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지구의 사막화 방지는 특정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리 많지 않지만 목재자원과 연철석 등이 지역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는 기업과 펄프업계, 주택관련사업계, 철강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자원을 채취하게 되면 그 이후의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은 먼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기업이 규제사항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방법이나 새로운 비즈니스의 설립이나 개발을 들 수 있다.

프론가스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거의 전기업들이 21세기가 다가오기전에 폐기를 계획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를 각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이유는 프론가스에 대해서 훨씬 오래전부터 업계가 대응해 왔다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공해문제와 소비자문제에서 얻은 교훈이 크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93년도에 전체폐기를 결정한 세이코 엠슨사는 호수오염문제로 지역주민의 반발을 의식한 것도 그 이유의 하나이다. 이산화탄소는 자동차메이커와 전력회사가 대상이 되고 에너지의 변환 효율을 이루

고 있지만 규제에 적극적으로 따른 것이 역시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는 자세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들을 다른 나라에서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새로운 대체품개발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7. 맺음말

많은 기업이 지구환경문제에 각종의 대응자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에는 인류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기업활동을 하고서는 기업활동의 존립자체가 형성되지 못함을 현실적으로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구환경시대의 가장 곤란한 문제는 국제간의 경제불균형속에서 글로벌한 규범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는 점이다. 개발도상국과 새로 자각한 동구제국이 선진국수준의 경제건설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지구환경은 파괴될 것이므로 선진국이 에너지형의 생산기술체제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지구환경보존형의 산업기술개발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서 공생하는 시대로의 진입을 인식하는 경영자세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기가 나빠다는 이유로 기존의 환경시책을

완화하고 보다 엄격한 공해대책으로의 진일보를 유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단격적인 처사로 보인다. 공해방지 투자촉진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투자부분보다도 더 많이 투자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성장에 기여하고 기술개발과 함께 경영혁신을 추구하여야 한다. 그것은 결국 환경을 지켜나가면서 경제발전을 하는 쪽이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쪽보다 경제면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훨씬 더 높은 투자효율성을 수반하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접적인 공해피해로 수천명이 죽고 미나마따의 경우처럼 큰 사고가 없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겠지만 그러나 지난 60-70년대의 급격한 공업화, 개발일변도의 정책속에서 환경피해반대운동이란 반체제 내지는 반국가운동과 맥을 같이 하는 집단으로 간주하여 취급한 것은 우리의 기업들로 하여금 공해방지의식을 약화시킨 요인이기도 한다.

지금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열풍으로 휩싸여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녹색화운동 즉 그린라운드를 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환경규제를 강화하려는 선진국의 무역압력으로부터 스스로의 국내환경을 개선하여야 하며 환경을 배려하는 개발 및 기업경영의식이 필요하다고 본다.